

“완도산 해조류로 국민식탁 바꾸겠다”

김종식 군수, 국제해조류박람회 군민 동참 당부

전국 영양교사 초청 팸투어 등 해조류 알리기도

김종식 완도군수가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2014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 군수는 특히 해조류로 대한민국

식탁을 바꾸겠다면서 영양교사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해조류 알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된 ‘주민과의 열린 대화’ 현장에서 국제해조류박람회

의 추진 과정 설명과 함께 군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홍보대사를 자임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주민과의 대화는 현재 금당면까지 7개 읍면을 진행한 상태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2014년 해조류박람회 개최에 따른 군민의 이해를 돕고 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설명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 군수는 “해조류는 완도의 전통 산업이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뿌리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조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식품, 뷰티, 소재, 의약, 바이오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조류 산업의 미래를 선점해 완도군의 미래를 확 바꾸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제도에 따른 시장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해조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면서 “대한민국 식탁을 바꾸어 가도록 전국 학교 영양교사 초청 팸

투어 등 다양한 해조류 알리기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의 해조류 양식장은 2만 2808ha이며 9039여가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연간 37만4000t 생산해 1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완도군은 이에 따라 2014년에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소재로 한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마스코트(좌)와 심벌.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마스코트·심벌 확정

“2014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의 심벌·마스코트 등 이미지 상징물이 확정됐다.

심벌마크는 박람회와 인류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국제 행사를 의미하고자 지구를 형상화했다. 황색은 갈조류로 미래의 식량자원, 녹색은 녹조류로 청정한 자연환경을, 홍색은 홍조류로 해조류 산업발전을 각각 뜻한다.

5개의 환선은 5대양을, 6개의 조각은 6대주를 표현한 인류 화합과 참여, 그리고 성공적 행사 개최 염원을 상징화했다.

로고타입은 심벌마크와의 조화를 전제로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깔끔한 서체를 활용한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발했다.

마스코트는 완도 바닷속에 사는 해조류의 꾸밈없고 정직한 모습 그대로를 요정으로 표현했다. 해조류의 ‘해’와 맛(味)의 ‘미’를 따 ‘해초’와 ‘미초’라고 불렀다.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기본형과 응용형으로 구성된 상징물을 활용, 군내 공영버스와 활어운반차량 등에 부착할 계획이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내년 4월 11일부터 한 달간 완도 해변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촬영장 각광 나주 산포 ‘메타세쿼이아길’

각종 CF와 구미호연, 프레지던트, 1박 2일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모 공중파의 인기 드라마인 ‘아이리스’ 제작진이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촬영에 여념이 없다. 이 길은 지난해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장소로

이후에 따라 촬영장은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경로효친 의식 고취와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가거도 ‘슈퍼방파제’ 6일 착공

국비 2500억 투입 2018년 완공...방파제 유실 차단

1만급 사각 콘크리트·100t급 소파블록 교체 작업

국도 최서단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6일부터 ‘슈퍼 방파제’ 건설 공사가 시작된다.

3일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마다 반복되는 가거도항 방파제 유실 등의 피해를 막고 100년 주기의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항구를 복구한다.

관리단은 64짜리 테트라포드(TTP) 대신 초대형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1만급 사각 콘크리트(케이슨) 19개와 100t급 소파블록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케이슨은 높이 28.7m, 폭 28m로

아파트 10층 높다. 한 개를 제작 시공하는 데 3개월 가량이 걸린다. 설계 파고도 현행 50년 빈도인 8.3m에서 100년 빈도인 12m로 상향 조정했다.

슈퍼방파제는 국비 2500억원을 투입, 오는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시공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태풍 때 방파제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 어선 인양기 설치 공사는 오는 6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기존 10t 규모의 어선 인양 크레인을 20t으로 중량을 높였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함평읍, 독거노인에 맞춤형 서비스

생계곤란 노인 만남·생신 챙기기 등 2개 시책사업 추진

함평군 함평읍이 독거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시책사업 2건을 펼치기로 해 눈길을 끌고있다.

함평읍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에서 중지된 가구,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제 부양을 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비수급 생계곤란 독거노인 만남의 날 행사’를 매월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함평읍은 이복순(90·함평읍 석성리) 할머니 집에서 김귀재 함평읍장과 담당 공무원, 마을 이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첫 행사를 갖고 화재위험이 상존한 아궁

이를 옮기고 내의를 전달한 후 점심을 함께했다.

또 의지할 가족 없이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자녀역할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주고 한때나마 행복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무의탁 독거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귀재 함평읍장은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경로효친 의식 고취와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여수 출신 예술인들이 지난 1일 고향에서 감동의 콘서트를 펼치고 있다. /김창희기자 chkim@

여수 출신 예술인들 ‘감동의 콘서트’

예음마루 소공연장 ‘네 꿈에 날개를’ 주제 2시간 열연

여수 출신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감동의 콘서트를 펼쳤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여수 예음마루 소공연장에서 지역출신 예술인들이 ‘네 꿈에 날개를’ 주제로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시간 동안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여수시와 민족예술총연합(민예총) 여수지부 등이 어려운 여건에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수 출신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체대 이주영(20)양의 창작발레 ‘꿈꾸는 바다’로 시작된 공연은 이준희(19·전남대 성악과)군의 독일·이태리 가곡, 이예린(18·국립국악고)양의 가야금 찬조와 류희원(21·중앙대 한국음악과)양의 판소리 수궁가가 펼쳐지면서 열기를 더했다.

특히 독일 베를린 음대에 재학 중인 안은우(22)양이 오케스트라 곡 ‘라발스’를 피아노로 연주해 관객들의 감동을 더했으며, 여수지역 비보이 ‘소울 오브 스킵’의 피날레 무대가 이어지며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여수시 소호동 박모(여·38)씨는 “어린 학생들의 실력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높은 수준의 공연이 펼쳐져 시종일관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민예총 여수지부 제정화(41) 지부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고향사랑과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 콘서트를 마련했다”며 “국내 최고 공연장인 예음마루에서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치며 자신감이 더욱 커진 우리 인재들의 활약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창희기자 chkim@

전남도, 학교급식소 특별점검 나서

시군·식약청 등 민관합동 위생관리 실태 등

전남도는 일선 학교의 개혁에 맞춰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민·관 합동으로 학교 급식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도, 시군, 식약청,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9명이 참여하게 되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와 급식소에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식재료 공급에서 보관·조리·배식단계까지 단계별 위생관리 실태와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 조리용 기구류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급식소에 납품되는 김치류, 식재료를 비롯한 지하수, 음용수, 조리음식, 즉석식점 채소류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하게 된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별 점검이니 민관 위생관리에 소홀한 급식소와 원재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CJ 헬로비전 www.cjhelle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불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 헬로tv ▶ 헬로넷 ▶ 헬로폰

SAVE 최대 56%
헬로셋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로

※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시공전 / 단열메이스카시공 2 단열메이스카시공 / 트라이슈머시공 3 트라이슈머 방수시공 4 시공 후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